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2005년 성시화를 꿈꾸며 | 4. 세계화 시대의 국민정신 | 7.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 | 9. '희망의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요

나 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75호

쓰나미로 고통 받는 아시아의 이웃

2005년 새해가 밝아 이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지구촌은 2004년 말 새해를 며칠 앞두고 일어났던 등 · 서남아시아의 지진과 해일이란 천재지변으로 인해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쓰나미는 12월 26일 오전 7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해역에서 진도 8.9의 강진으로 발생됐다. 현재 지진 해일피해 사망자 집계가 약 22만 6000명을 넘어섰다고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다. 유엔은 약 9억7천7백만 달러가 있어야 다음의 6개월 동안 희생자들이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지진 후 발생한 강력한 해일이 벵골만과 안다만해 등을 가로질러 스리랑카와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안을 강타,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22만명이 넘게 사망하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과 경제적 손실 등으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더운 날씨에 따른 부패와 식수오염으로 인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콜레라, 설사병 등 전염병이 들 것이 예상되므로 보건체제가 시급히 정비되지 않을 경우 수인성 전염병에 따른 2차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쓰나미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 지역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충격을 받은 마음

이번 지진 해일의 충격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의 대재앙을 보면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과 사랑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의 대재앙 속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긍휼, 전지전능함과 깊은 사랑을 깨닫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답변이다. 그들은 이번 지진 해일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돌아보고 대재앙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과 정죄는 금물이다. 고난당한 이웃을 향하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섣부른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들을 자연재해에 희생양으로 내몬 것은 이 세상의 금욕주의가 아닌가 싶다. 그들은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산호초를 잘라다 팔아야 했고, 해변에 야자나무 숲을 베어내어 해변을 만들어야 했고, 탁 트인 해변을 즐기며 드라이브를 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닦아야 했다. 결국 세상이 전해준 금욕주의로 쓰나미는 아무런 바리케이트 없이 육지로 들진했던 것이다. 이것이 저들의 죄라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자연의 대재앙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불러온 공동의 책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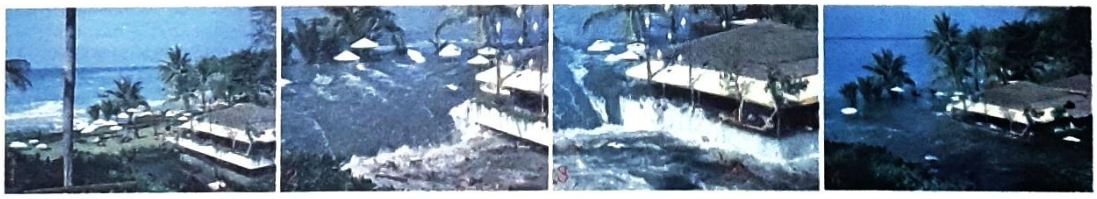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넘어가면서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고 반문하시면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등 · 서남아시아의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혹은 가족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

▮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

고난당하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마음이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15)고 하신 말씀대로 고난당하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다가가는 자세가 요청된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이번 쓰나미 사태로 고통 받는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저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보고도 듣게 된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고난의 때가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기회이다. 우리를 선택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이 어디 한 가족, 한 민족을 위한 길이었는가? 열방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들을 선택하심은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고통 받는 세계의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 받을 세계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편집부 최영조



이달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리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 갈등이 아닌 화합의 정치

박정희시대를 놓고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이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지도자와 국민이 되길

· 경제와 교육 계를 위해

계속되는 부정 성적조작과 교사 자녀 위장전입, 대학 내 대리시험,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죄악이 깨어지고 선하고 의로운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의의 나라가 되길

· 문화와 가정을 위해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혼란한 교육체제와 깨어진 가정들로 인한 청소년들의 아픔이 복음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길

· 세계를 위해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재난을 당한 동아시아지역에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또 아직도 분쟁 속에 있는 이라크와 새로 부각되는 이란의 핵문제가 해결되길

신(편)입생 모집안내



이사장 김주환 목사



학장 이준일 목사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졸업이상또는 동등자격을 갖춘 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4년제	
편 입	2년제	

※모집기간 : 2005년 2월 19일 까지

교무처 : (033)253-2796, 257-2740, 016-342-4812 FAX : 241-2741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운동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특 집

2005년도 성시화를 꿈꾸며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지금까지 성시화운동을 위해 모든 교회의 영적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도하며 섬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이 일어났던 이 땅이 다시 생명의 횃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시화의 주인공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시화를 통해 모든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춘천의 모든 언역마다 복음적 변화가 일어나길 함께 바라보면서 헌신의 땀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함께 모으면 우리 시대에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기도를 통한 복음화의 전략- 중보기도단 운영

지난 2004년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를 통해 약 200여명이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헌신하였다. 중보기도, 땅밟기 · 영적 지도그리기 등의 창조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기도에 참여하시겠다는 의견을 쓰셨다.



옴해는 이를 위해 은혜장로교회 지용찬 목사님이 중보기도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셔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매달 1회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연합 철야집회를 하여 모든 춘천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선정하고 제안을 받아 기도편지를 작성, 수시로 알려주는 등의 기도 벨트가 도시 안에 형성되고 각자 작정한 시간에 각자의 교회에서 기도하므로 사회의 정치 · 경제 · 교육 · 가정 · 문화 등의 구체적인 면에서 거룩한 변화와 복음화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복음화를 위한 영역별 소문과 활성화 -은사별 네트웍 작업

목회자나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재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며 섬길 하나님의 숨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를 복음적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기도 가운데 형성하되 예를 들어 증보기도 · 전도전략 · 가정회복 · 청소년 또는 단기선교, 이단문제, 영화나 비디오, 컴퓨터, 찬양이나 악기 등등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일에 따로 떨어져 대부분 혼자 하다가 실망하거나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성시화운동을 위해서는 이 모든 은사는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모이게 하여 팀을 이루고 공동으로 연구 및 과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시화 즉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됨으로 실제적인 섬김을 모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가정, 청소년, 컴퓨터 등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에 불의와 불법을 깨뜨리고 복음적 공의가 다스려지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되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닌 주님이 세우시는 연합된 힘으로 각 분야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각자의 영역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3. 홀리클럽의 운영및 활성화

우리가 도시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의사들, 교수모임 등이라고 봅니다.

일찍이 춘천은 기관장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성시화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임이 휴화산처럼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모임마다의 이름을 홀리클럽이라 하여 은영되며 이는 전국적인 모임으로서 여러 방인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각 영역을 세순처럼 일으킬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다시 도시를 믿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4. 장학재단 운영

일찍이 기성세대는 차세대의 신실한 일꾼이 일어날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각 교회마다의 장학재단을 확인하여 보니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이를 개교회의 활동에만 두어서 저효율적인 운영을 하기보다 연합으로 재단을 형성하여 사회에는 빛이 되게 하며 또 아주 생산적인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음적 재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경제인 홀리클럽이 형성되어 1% 내기 운동 등을 하면 분명 춘천을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멋진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합된 투명하고도 신실한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협조하고 연합을 이룬다면 성시화운동본부는 이를 겸허하게 섬기고자 합니다. 더욱 춘천의 교육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청소년 문제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5. 성시화를 위한 전략적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1) 성시화의 전략을 위한 성시포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2) 모든 교회의 한 교회 운동을 일으키며 내적인 생명적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3) 100인 클럽 즉 99마리 양이 아닌 1마리째 양을 위한 전도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100번째 양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기도방법과 전도방법을 확산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사역과의 연계 중보기도단과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 등과의 긴밀한 연합을 통한 매스컴의 동원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며 생산적인 성시화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복음화를 위한 전략이 실제로 적용되면서 변화된 도시를 면밀하게 연구하며 또 지금 남미 등지에서 일어나는 도시복음화를 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지속적인 성시화 선교대회의 성장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제안하신 봄내제 등이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는 부흥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교단과의 장벽을 허물고 실제적인 성령운동이 중심을 이루어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부흥회가 아닌 교회의 영성을 시민운동화 하여 '깨끗한 춘천만들기운동'으로 확대시키고 체육대회를 단순히 교단간의 운동이 아닌 조기축구회나 조기탁구회, 테니스회 등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꾀하는 등 사회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변화를 위한 접촉과 또한 모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호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여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진정한 시민 축제가 되게 함으로써 시민운동 ·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데 성시화운동은 이를 섬기고자 한다.

7. 성시신문의 확대 및 활성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춘천을 성시화 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언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성도
정재호 이영규
김춘배 김규헌
김수영 이희영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지어요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에서는 금년도 디세대주택 2동8세대가 입주할 사랑의 집을 지어 입주시키고자, 입주 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5. 2. 1~ 2005. 3. 15 까지 본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254-0009

춘천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로 성결대학교 김성영 총장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총장님, 반갑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성시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찍이, 성시화운동에 대한 금을 기고하신 적도 있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시화운동에 관심이야 많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CCC 민족복음화운동에 앞장서 계시는 김준곤 목사님께서 엑스플로'74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합 때부터입니다. 김목사님께서는 지역복음화는 성시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전에 저도 공감을 하고, CCC사역을 통해 더욱 성시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춘천성시화, 대전성시화운동은 일찍이 성시화운동을 시작한 성시화의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총장님께서 현재 성시화운동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저는 현재 서울수도권의 주요지역인 안양시의 성시화를 준비하는 기도모임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문화적으로나 행정적, 지리적으로 볼 때 개신교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거점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안양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7, 8개의 여러 기도모임그룹 이름데면, 목회자기도모임, 여성도기도모임, 성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학대학생 기도모임 등이 오랫동안 안양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 속에는 궁극적으로 안양시 성시화에 대한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도 그룹들이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동일한 비전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양을 성시화하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성시화가 곧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늘 성시화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총장님께서는 성시화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운동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사도행전 2:14절을 전후로 보면 초대 교회가 주도한 최초의 성시화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속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행1:4)고 당부하신 말씀처럼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소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채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시화운동으로써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시화운동이란 곧 지역적으로 한 도시, 한 지역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 의하면 성도들은 세속의 도시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세속의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의 도시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화된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춘천성시화가 시작된 지 벌써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포함에서 제1회 세계성시화운동이 개최되는 것을 비롯해 성시화운동이 국내, 해외로 확산되어지는 구체적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춘천이라는 도시 내에서 전개되어진 성시화운동의 열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으로 춘천성시화를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춘천성시화운동은 국내의 몇몇 주요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시화운동의 가장 큰 모델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춘천성시화운동에서 큰 자극과 도전을 받고 있어요. 평소에 저는 세속화 되어가는 도시들이 우러러보며 본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개혁된 도시가 필요하다가 생각했었는데, 춘천이 이 시대에 그러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 현재, 한국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시화운동과 관련해서 한국기독교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성도들의 모범된 삶입니다. 즉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상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제와 봉사를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을 잘 몰라서 비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13세기의 성자 프란시스는 어느 날 제자들과 나환당한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우리가 고통에 처한 이웃과 함께 나눈 노동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봉사는 봉사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극단적인 신뢰입니다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복음의 합당한 다른 삶입니다. 성시화는 그 지역 성도의 바른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성시화운동이야말로 성결한 생활운동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바로 살아야 합니다. 자크 엘룰은 「예수혁명」이란 책에서 "진정한 예수혁명은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정: 성결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방향이 있다면? 간단하게 성결대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김: 대학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각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대학은 기독교대학으로서 궁극적으로 학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학생들에게 증거하여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로 우리학교의 모토를 아름다운 대학으로 정하고 학문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 환경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결',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공동체 구성요원들의 인식은 성결대학교의 '아름다움', 즉 성결대학교의 '성결운동'은 곧 안양시의 성결운동이자 성시화운동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대학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교육기관으로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선각자이자 한국교회 원로신학자이신 故 영암 김응조 박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로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기독교 사학의 명문입니다. 올해로 43년의 역사를 맞게 되고 그 동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국내외 각 분야에 1만 여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 · 직원 ·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초 · 중 · 고교에 교육지원 봉사를 하는, 이른바 '봉사하는 대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삼대 본령이 교육, 연구, 봉사인데 봉사는 대학의 최종목표이자 결론입니다. 왜 교육하고 왜 연구합니까? 궁극적으로 교회와 지역과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현재 혹은 남은 생애에 있어서, 총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금을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므로 시인으로서 오랜 기도의 제목인 성경서사시 「아하비트 아도나이」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시화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는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이 안양시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金成榮) 박사
- 성결대학교 신학부 졸업
-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 D.)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Litt. D.)
- 「현대문학」추천시인(1972)
-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원, 국제 P.E.N.회원
- 「대한민국문학상」(제1회 鼎의 문학부문) 수상(1977)
- 저서「완벽성경성구대전」(전7권), 「기독교문학론」외 다수
- 시집「백의종군」,「鼎」,「가시나무새」외 다수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
- 현)한국복음주의신학회 부회장
- 현)신학교육개선공동연구협의회 총무
- 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 현)시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 현)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현)성결대학교 총장

일시 : 2004년 12월 28일
장소 : 성결대학교 총장실
진행 : 조영춘, 정재호
글정리 및 사진 : 이희영, 김미경

통 일

세계화 시대의 국민 정신



강원대 명예교수 조 인 형 장로(영세장로교회)

우리들은 오늘날을 세계화시대 · 글로벌시대라고 부른다. 이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까지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세계가 하루하루 좁아져 가고 있다. 이런 정보 · 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정치적으로는 각자 독립된 국가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과 국민간의 교류, 인종과 인종간의 교류가 빈번해 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인은 이런 글로벌시대, 지구민족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어떤 정신지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약속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 기업인과 노조 간의 약속,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개인 간의 단절, 기업인과 노동자간의 불화, 국가 간의 반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정신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세계인으로서 가져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실체는 국민이다. 국민 개개인이 다른 나라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飛火)할 것이다.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였다. 만일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빚을 얻어 쓰고 갚지 않겠다고 채무상환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선언을 한다면, 그 영향은 그런 선언을 한 당사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피해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 외래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력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2005년 현재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만해도 약191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치 · 경제 · 종교문화가 대체로 다르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특히 정치문화와 종교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지 못해서 국가 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획일주의적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주의와 다구조주의를 인정하고 더불어 공존하자는 사상이다. 자기 나라의 정치문화와 종교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성숙한 세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상식이 통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1989년 2월에 배낭을 메고 유럽 10여 개 국가를 혼자서 여행한 일이 있다. 그때 로마를 방문한 일이 있다. 옛날 원로원이었던 로마 포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10대 아이들이 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더니, 그 아이들 중 하나가 갑자기 나의 가슴에 지니고 있던 카메라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나는 재빠르게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친 적이 있었다. 또한 카라칼라(Caracalla) 목욕장을 관람하고 안토니우스 카타콤으로 가기 위해 카라칼라 목욕장 부근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자가용을 몰고 오다가 내 앞에 차를 세우고 접근했다. 그는 나에게 이탈리아 경찰이라는 신분증을 보이면서 여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외모와 행동으로 보아 진짜 경찰이 아닌 것을 감지하고, 이탈리아에서 유숙하고 있는 여관의 명함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나의 호주머니를 수색하려고 바싹 접근하였고, 순간 나도 모르게 옛날 고교시절 유도장에 다닐 때 하던 모습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노 터치'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그는 슬그머니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다. 그런 악몽을 겪고 난 후에 나는 스위스 바젤에서 밤기차를 타고 파리의 동역(東驛)에 이른 아침 6시경 도착하였다.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동역 내에 있는 환전소로 갔다. 큰 가방은 카운트 데에 올려놓고, 작은 보조가방은 카운트 밑에 놓고 환전하는 등안에 작은 보조가방이 어느새 순간적으로 없어졌다. 이런 상식 이하의 못된 짓들이 그 나라 국민들 중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 현상의 하나로 이해되기를 바라면서도,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진국으로만 알았던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만일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필자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일을 당한다면, 그들도 고국에 돌아간 후에 필자가 느꼈던 것과 같은 나쁜 인상을 오랫동안 지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 비가지 상혼(商魂)을 버리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배낭여행을 하던 그 시기에, 나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데살로니가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역에 맡기고 박물관 등을 관람한 후에, 다시 짐이 보관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박물관에서 역까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역 앞에 세웠다. 그러다 보니 생각 외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 초행길이지만, 나쁜 택시 기사를 만난 것이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18시간 기차를 타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한 후, 목적지인 소피아성당으로 갔다. 그 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소피아성당과 맞은편에 있는 이슬람사원의 내부를 안내하겠다고 하였다. 그 순간 나는 친절한 안내원을 만나서 잘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랬더니, 그 두 곳을 안내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적지에 관한 다량의 슬라이드 필름을 살 것을 강요하였다. 혼자 여행 중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 속에서 을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슬라이드 필름을 구입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인과 터키인에 대한 인상이 좋을 수가 없다. 만약 바가지 상혼의 표출로 말미암아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면 한국인이 세계무대에서 설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바가지 씌우는 근성이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한국인을 성숙한 세계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고 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차를 탈 때나 화장실 등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훈련이 부족하다. 교양있고 성숙한 세계인이 되려면, 세계인들이 누구나 지키는 일반적인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질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등국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 국민보다 세계에서 가장 질서의식이 강하면, 그 부분에서 그만큼 세계적인 일등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다. 거친 말은 불쾌감을 유발한다.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운 말이나 불쾌감을 주는 거친 말을 한다면 부드러운 인간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반갑습니다(I'm so glad to see you), 감사합니다(Thank you), 미안합니다(I'm so sorry), 잘했습니다(You did a good job) 등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겸손한 인상을 주면서 격려가 될 만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려는 태도보다는 될수록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장점을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가증스러운 말과 거짓된 인상로 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과 국민 간에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가 간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지구촌의 각처에 살고 있는 세계 60여 억 인구들은 환경과 주변 여건이 다르다. 때로는 전쟁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들과 고아들이 발생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또는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성숙한 세계인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촌 도처에서 아픔을 당하는 것을 못본 체 방관하는 사람은 진정한 세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는 이상적인 세계인상(世界人像)을 지닌 인간을 추구하기 바란다.

인쇄 · 출판 · 광고물
벧엘문화사
기획 편집 인쇄
※ e-mail교정 ※ 카라옵셋인쇄 ※ 1,200dpi급 경인쇄
춘천 효자456-4 (춘천 우체국 부근)
http:n033.co.kr
e-mail : ysalom@hanmail.net
☎ 252-3716, 255-2768 / fax 255-2769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랑의 편지

정 **선교사는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1989년 방글라데시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교회에서도 제 파송을 받으면서 교단과 선교단체를 초월한 뿐만 아니라 깊이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뿐만이 아닌 국제 NGO사역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보는 춘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게 되었다.

선교사가 주요사역으로는 교회개척사역과 국제 NGO사역이 있다.
먼저 미전도 종족인 소수부족의 M부족과 J부족지역에서 94년도부터 교회개척사역을 시작하여 JM부족 등 여러 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재 30여 곳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현지인사역자들을 신앙의 실 생활화를 위해 예수제자훈련학교(6개월과정)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 2년마다 목회자신학원(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4년 12월에는 목회자신학원 집중강의를 50~60여명이 참여하여 복음사역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는 뜨겁고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NGO단체 사역이 있는데,

첫째, 고아원(사랑의 집)사역은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소명을 갖고 사랑의 집을 열게 되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모슬렘 국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과 생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적 지도자로 쓰여지길 기대하며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립을 돕고 기독교의 신실한 일꾼이 거의 없는 이 나라를 희망질 지도자로 훈련시키고자 영아부터 18세까지 양육하고 있다. 현 아동수는 남아 30명, 여아 24명, 총54명으로 많은 종족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상황으로는 Nursery~Class5과정은 고아원내 초등학교를 자체 운영하고, Class6~Class10과정까지는 외부의 고등학교에 재학시키고 있다.

둘째, 기숙사사역으로 지금 9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산 속에서 사는 소수부족 가운데서 이 도시로 유학을 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평상 20~30명).
이들은 이 지역 주변의 소수 부족의 자녀로써 이들이 대도시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40종족에 가까운 소수부족과 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벵갈인 간의 해결하기 어려운 반목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교육을 받아 종족마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숙사사역은 차세대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으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대부분의 모든 소수부족들은 정령숭배와 불교를 믿으며 복음을 모른다. 이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이런 사역을 통해 화보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아이들은 후에 각기 부족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는 동안 이들은 성경공부와 예배의 신앙훈련을 통해 대부분이 알아 지내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함께 헌신하게 되는 등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감격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기숙사 사역은 좋은 소문과 영향력을 주며 다른 부족(CM와 M)에서도 간절히 요청을 해오고 있기에 건물과 좋은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점차적인 확대를 위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셋째, 소망공제기술학교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히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여성들은 모슬렘 국가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사회적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방글라데시에는 봉제산업이 부흥하면서 여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망기술학교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재단, 봉제기술, 자수기술을 가르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26명씩 4개월 과정으로 매년 3기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샬로아까민즈와 사리 블라우스이 나라 여성옷, 남자 셔츠, 남자 바지, 아동복 등 10여 가지가 있고, 서양자수, 녹시까따방글라 전통자수, 레이스 뜨기, 십자수 등이 있다. 특별교육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건강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멤버쉽(공방)제도는 졸업생들의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기념품이나 카드 등을 만들어 판매의 수익금이 멤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관계를 이어간다. 생산품으로는 자수 가방, 자수 카드, 옷과 홈패션용품 등이 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10~12시에 모여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며 토론하고 교육한 후에 일감을 제출하고, 새로운 일감을 받아간다.

넷째, 믿음보건소사역은 기초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치료를 통해 영·육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자 한다.
빠띠*리, 뽀디*밧 NGO보건소가 있는 지역에서 주 5일(일·수-뽀띠*밧/월·화·목-빠띠*리)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인 내과의사 1명(힌두교인), 간호사 1명(안식일교), 행정 및 보조요원 2명(모슬렘과 기독교인), 은전기사 1명(카톨릭), 한국인 간호 사역자 2명이 수고하고 있다. 보건소는 인근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원거리에서도 오고 있다. 진료비는 5~10따까(120~25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일반 병원은 초진이 300따까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사역은 학교가 어촌마을인 밀자노*과 삐띠*리, 구라마*에 있다. 이 지역은 매우 가난하고 문맹자들이 많은 곳으로 그 지역 내에 국립학교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1991년 4월 29일 이 지역을 강타한 태풍과 해일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었고, 이러한 구제사역의 엄매로 인해 시작된 것이 바로 주일학교사역이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으로 시작 된 것이 초등학교이고, 현재 150여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고아원 안에서 운영되었던 자체 초등학교도 새로 이사한 등네에서 새롭게 초등학교를 건축하여 인근의 마을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보*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2005년 2월초에 학장 개교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금 진행중인 사역들의 안정화와 장기적인 비전을 품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으며, 또 아사역을 진행하며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정 선교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게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정에 의해 지명에 *를 표시함)

(글 조영준 / 자료제공 방글라데시 선교회)



햇살어린이집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님들의 신뢰에
흡족한 만족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TEL 033) 261-3452

춘천시 석사동 732-2
(애막골 노인정 앞)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 신 교 회

담임목사 이 병 서

【교육전도사】 구함

- 신학대학 이수 또는 이수중에 있는 사람
- 교회 중·고등부 담당 및 담임 목사 사역 돕는 일
- 구체적인 사역 내용과 사례 등은 이력서 지참
- 담임목사님과 상담 후 결정

200-955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67-54번지 29/4
☎033)253-6640(사택) / 256-6640(교회) / 011-374-7640(담임목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글 김 헌 곤 목사(춘천새순교회)

당시 국내 상황은 1895년에 발생한 콜레라 전염병과 민비 시해로 경제적, 정치적 혼란은 민중들을 동요시켰으며, 러·일 전쟁 후 일본의 강압적인 을사보호조약으로(1905.11.17), 국력이 넘어가고 고종황제가 강제 폐위당하고(1907.7.24), 한국 군대마저 무장해제 당하는 수모 속에서 한민족이 의지할 곳은 질대자 하나님 한 분 뿐이었다.

이런 경제적, 정신적 빈곤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장차 쓰임 받을 제사장의 나라, 선교국가로 사용하시고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평양의 대 부흥운동을 주셨다.

필자는 1903년 영국 웨일즈 부흥, 1904년 인도 카시아의 부흥, 1905년 아주사의 부흥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1977년까지) 부흥운동이었다고 믿으며, 그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평양 대 부흥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을 바라보며 평양 대 부흥운동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평양부흥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이면서 몇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셨다. 독단적 개인플레이는 아니지만, 웨일즈 부흥이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아주사 부흥이 윌리엄 세이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평양의 부흥운동도 하디선교사와 길선주장로의 공로(역할)를 빼놓을 수 없다.



평양사경회가 열린 1907년 10월에 안수를 받은 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 앞줄 좌로부터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뒷줄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1.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3년 8월 의료선교사 하디는 선교사들의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자신의 사역 실패를 고백한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강원도 지경대(地境垈)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 의지했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민족적 우월감, 의사로서 학력과 실력을 의지한 자만감, 한국문화와 한국민족을 무시하는 교만감"등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낫낫이 고백했다.

하디의 진솔한 회개를 들은 여러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데굴데굴 같이 구르며 죄를 회개하였고, 그들은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회개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영적각성은 원산 전 교회에 전달되었고, 계성으로 서울로 제물포로 확산되면서 1906년까지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은 1906년 가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선교사들의 연합사경회가 원산에서 8월 5일부터, 평양에서 8월 26일부터, 서울에서 9월 2일부터, 한 주간씩 있었으며, 특별히 서울 집회에서는 하워드 존스톤 선교사를 통해 영국 웨일즈, 인도 카시아, 미국 아주사에서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부흥운동 소식을 접하고, 한국 땅에도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매일 12시 정오 기도회를 결의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위기감을 갖고 기도회에 매달린 것은,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최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미국이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승인하면서 한국민의 반미감정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한국교회는 매일 수 백명이 모여 한 시간씩 구국기도를 하였고, 선교사들도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정오기도회를 가졌다.(1906.12.26-1907.1.15)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사경회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것이다.(1.6-1.15) 400여 교회가 연합하여 각 교회 남자 직원들만 모였고, 주 강사는 장대현교회를 담임하는 이길함(Graham Lee) 선교사였다.

참석자 증에는 혹한 추위와 싸우면서 130-140Km의 먼 거리에서 먹을 양식과 보따리를 메고 걸어온 자들도 있었다. 사경회는 관례에 따라 새벽기도회와 오전 성경공부, 오후엔 합심기도회와 평양 전 지역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였고, 저녁에는 심령부흥회로 진행되었다. 오전 성경공부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지만 저녁에는 일반교인들까지 1,500-2,0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장대현교회로 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고 한다. 여자 장년교인들은 산정현교회, 사창골교회, 남문밖교회에 분산해서 모이고, 청소년들을 위해선 미션스쿨에서 연합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장대현 집회의 폭발은 14일 저녁에 터졌다. 한국의 제임가는 설교자 길선주장로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였으나, 분위기는 냉랭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을 다 버리신 것 같은 분위기로 굳어졌다. 1부 예배를 마쳐 1,400명이 돌아가고 600명이 남아 이길함선교사의 인도로 온 마음을 다해 통회자복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했다.

이때 다시 강단에 올라온 한국교회 지도자 길선주장로는 "나는 아간입니다."하며 눈물로 친구의 재정을 착복한 것을 회개할 때 그 자리의 어둠의 영이 떠나고, 뭄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듯이 성령의 충만이 봇물처럼 휘감았다. 이때부터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어떤 이는 데굴데굴 구르며,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방위량선교사는 「Cold in Korea」글에서 "저들의 기도소리는 거대한 폭포수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믈기둥 같았으며,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였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강단에서 선교사간에 피차의 죄를 고백하였고, 많은 한국교인들은 일본인을 미워한 것을 회개했으며, 어떤 이는 믿기 전에 친구를 살인한 죄를 고백하고, 한 교회 사역자는 교회 재정을 도적질한 것을 고백했으며, 어떤 이는 여러 가지 강도 짓한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으며, 양찬성씨는 결혼 초 슬김에 부인을 때려죽이고 도망중이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부인이 그 때 죽지 않고 기절만 했었노라며 재회의 감격을 누렸다. 온 회중은 회개와 기쁨의 눈물과 찬양으로 거룩함이 가득한 집회였노라고 매큔선교사는 기록하고 있다.

장대현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불덩어리는 미션스쿨에 수업이 중단되고 기도회로 대체되었으며, 2월에 다시 남?여 사경회가 각각 열렸으며, 이때 은혜 받은 분들이 각각 고향으로 들아가 보고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다니며, 평양의 성령강림을 전할 때 심천리금수강산에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가득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 땅에까지 소개되었고, 1909년 12월 1일 남감리교 사역자 사경회가 경기도 이천에서 모일 때 "백만 인을 예수에게로"란 찬양을 부르면서 "백만 인 구령운동"을 외치게 되었다(그 당시 교인은 20만 명).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평양의 대 부흥운동은

1. 준비된 기도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2. 하디선교사, 길선주장로 등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통회자복했다.
3. 선교사들의 한국민족을 사랑하는 몸부림도 기억해야 한다.
4. 영적 각성운동으로 승화된 부흥운동은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술집이 문을 닫으며, 사회 정화운동이 되었다.
5.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으로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귀의하였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은 춘천시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끝으로 미국 제 1차 대 각성운동의 주역이며, 청교도 신앙의 대부가 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대로 "부흥운동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명심하고, 이 주권적 역사가 어느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회개와 통회 가운데 늦은 비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나타남을 기억하자.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알선 (수학·졸업 여행)
● 배낭여행·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사진의 명가
귀 빈 스 튜 디 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 백일·돌·웨딩사진촬영
▶ 교회임직 기념사진 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춘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조용호 목사편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움직이는 강원대 후문 대학가, 그 중심에 위치한 춘천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았을 때, 마침 편집진을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조영호목사의 모습이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사택으로 안내받은 편집인은 이웃집 아저씨에 걸 맞는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편안하고 다정한 느낌의 사모님의 따뜻하고 편안한 환대를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아늑함을 느끼며 정겨운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과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초기에 강원 도지사였던 박경원씨와 미정부로부터 미군 캠프에 파견된 고문관 오크리 형제에 의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으나, 그 후 담임 교역자의 잦은 이동으로 정체기를 한동안 보내다가 86년 8월 조영호목사의 취임 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치면서 지금의 위치에 교회 건물을 세우고 깊은 영성적 변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는 그리스도교단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조목사는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였다. "본질상 우리는 개신교의 모든 건전한 교단과 교류를 함께 하며 서로 협동하고 연합하며 지역복음화와 특히 춘천성시화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리스도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지만 굳이 특별한 면이 있다면, 개교회의 법률적 상위 조직 자체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에 개교회 위에 대체적으로 군림하기 쉬운 총회나 지방회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모임을 갖지만 친교적, 선교적 모임으로 전환하여 더욱 효율적인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모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교리와 전통의 기둥과 지표로 삼아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마16:16절)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지역마다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사림의 신조나 사상이나 신학적 영향을 배제한 성경적 가르침을 존중하는데 한마디로 개교회주의, 성서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례대신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신 침례를 행하고 매주 예배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조금은 구별이 된다고 한다.

부흥실과 초기사역에 대해

경북 영천 출생의 조목사는 도시 이주현상이 많았던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부산으로 이사하여 성장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낸 조목사는 초등학교 졸업 시절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열심히 교회학교교사로 봉사하였고, 군제대 후 신문배달, 업음장사, 증소기업에서 일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었던 조목사는 그러나 25세 때에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수요예배 침석문제로 인해 직장상사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앞만 보며 달려가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영적인 회의에 빠지게 된다. 정말 이렇게 사는게 보람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 앞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조목사는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다. 복음을 건 나흘간의 기도 중에 목사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람(영혼)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한 후, 74년 부산성지그리스도 신학교에 입학을 하며 주님을 위한 길, 영혼을 위한 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78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이지은 사모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영양에서 영양그리스도교회를 개척하였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교인도 없고 차비도 없이서 부산 시내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던 그 시절, 많은 시간들을 기도와 성경 그리고 신앙적 서적을 탐독하면서 영성을 쌓아가며 지낸것이 지금까지의 목회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한 벌의 구두를 잃어버리고 난후 신이 없어 밖에 나가지 못했고, 고무신 한 켤레로 한 겨울을 나다가 텁신을 사고서 얼마나 감사하며 흐뭇했는지 모른다며 그리고 이런 어른 목사님이 이를 눈치 채시고 구두를 하나 주셨는데 발에 맞지도 않던 큰 구두를 신고 감사하며 다닌 적이 있다고 웃음 짓는 조목사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많은 고난의 역경을 이겨나가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목사님의 딤딤한 간증이 오히려 마음 깊은 김동으로 다가왔다.

가족으로는 편안하고 환한 웃음이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지은 사모와의 슬하에 1남 2녀(시온, 지혜, 대명)를 두었는데 큰 딸은 학교의 교사로, 둘째 딸은 홍대 디자인과를 나와서 지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들은 대학생으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한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사랑"을 꿈꾸는 교회이다. 은혜롭고 복된 교회로서 부흥과 사랑 속에 내면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이다. 4군데의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을 돕고 있으며 서울 송암동에 남춘천 그리스도의교회도 개척하였고, 마석에도 교회개척을 준비 중이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러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인도 비하르 등 해외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는 '몰라택(MOLLARTAK)'이란 크리스천스쿨을 개설해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10학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일에 11년간을 함께하고 있다.

향후 비전에 대하 묻자 마지막으로 조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좋은 열매맺는 춘천그리스도의교회를 기대해 보며 발걸음을 돌린다. (취재 편집부)



조영호목사
경성대학교신학대 신학과 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영양그리스도의교회 담임
부산중앙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서울봉동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서울청량리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 현 이사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외래 교수
현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



명함,스티커,전단지,포스터,카다로그,서류봉투,서식
행사용 단체복,유니폼,단체T, 현수막,실사현수막 , 판촉물, 행사 기념품
Top Pia 종합광고 기획사
디티피아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TEL : (033) 263-5152
E-mail : chsch1784@yahoo.co.kr FAX : (033) 242-5121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 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디자인
T.255-5722 F.256-5722

방 II

소개합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은조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향상시키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가치를 두는 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쉼림이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1989. 2. 28 개관하여 1993. 2. 10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원브비전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사업은 진단 · 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가족지원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중증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활용사업, 계몽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제약으로 인해 복지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평창, 속초지역에 분관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에


관장 최 은 조

는 철원지역에 분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보호와 교육을 병행하여 가정의 보호부담을 덜어주는 주간보호소와 장애아동전담 하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소그룹으로 공동생활하며 자립능력을 배양시키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이래 강원도의 열악한 지리적인 여건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도내 유일의 장애인지역재활시설로서 도내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환경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양적 증가,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 및 다양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은 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기대되는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여가/취미 활동 및 스포츠 활동 등 장애인 스스로 유의미한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량강화사업과 지역사회교육 및 계몽홍보사업의 확대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 최은조 관장)

■ 문의 255-2491~3 / 후원계좌: 농협(2003-01-422132)

영혼의 양식

새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고후5:17~19)



순복음춘천교회 김 주 환 목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아 중심의 감옥.
둘째, 근심 걱정의 감옥.
셋째, 과거에 붙잡힌 향수의 감옥.
넷째, 자족을 모르는 불만의 감옥.
다섯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새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상의 5가지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자유와 기쁨, 그리고 행복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새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 과거를 청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옷으로 바꾸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청산은 회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곱은 얍복강 변에서 과거를 청산하였습니다.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온 형 에서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과거의 자신을 깨뜨리고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새 옷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오랫동안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군사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이 연거푸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옛 생활의 습관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옛 생활의 생활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야만 새로운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놀랍게도 그 힘으로 과거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2.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사고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때에 보기 좋게 주님의 요구에 불합격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빌립은 벌써 빠른 계산으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지라도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이기에는 태부족입니다." 믿음의 발상을 하기를 바라는 주님에게 빌립은 보기 좋게 불합격생이 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고로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도와줄 때 발상의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끌려 다닌다.'고 비난만 하였습니다. 발상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남북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뿐입니다. 우리에게 줄 수만 있고 줄 힘만 있으면 즐수록 좋습니다. 주고 또 주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되어 눌러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 부단한 노력과 삶의 열정이 우리에게 새롭고 행복한 삶의 축복을 얻게 하여 줍니다.

노력 없이는 삶의 발전은 오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삶의 행복도 오지 않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말하기를 99%가 노력이고, 1%가 영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도 노력 없이 불가능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더 좋은 내일을 얻는 것도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피터렙이라는 팔 다리가 없는 청년이 20세기를 빛낸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피나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죽어있는 시체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삶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생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열정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열정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열정이 없는 강의는 죽은 강의입니다. 열정이 없는 부부는 죽은 부부입니다. 열정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겨울동산에는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령충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국성 목사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일존공)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기독교 타임즈 동부연합 지사

지사장 김 기 태 장로



■ 춘천중앙감리교회 장로
■ 춘천 이십사(24)장로회 회장
■ 춘천기독교방송시청자위원장

춘천시 옥천동 6-7 ☎ 011-9901-3511 / 033-254-7367
업무 : 구독신청(주간신문 1년 42,000원) / 광고게제 의뢰

'희망의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해가 바뀌어도 가정은 달라지지 않지만 가정환경은 변화한다. 한 가정에 중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신적 한계에 부딪치면 심지어 가정이 파탄되고 가족해체까지 불러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부가 성격차이나 경제문제, 외도 등으로 이혼하면 두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고 집안 문제가 되며 나아가서 사회문제가 된다.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 속에서 새롭고 신선한 것이 계속 공급되는 건강한 만남이 교류되고, 가정의 기초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예비할 것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기초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이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보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1~4)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요한2서1:1~2)

가정사역자들이 말하는 '가정행복 제안' 35가지

1. 서로를 칭찬하자
2. 한 달에 한번 문화체험의 날을 만들자
3. 함께 하는 패밀리 스포츠를 만들자
4. 가족 간의 별칭을 만들자
5. '하지 마라' 보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6. 하루에 두 차례씩 몸의 언어인 포옹을 하자
7. 십의이조 통장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자
8. '동거인'이 아닌 식탁을 함께 하는 '식구'로 살아가자
9. 주말에는 '마루 캠핑'을 떠나자
10. 자녀를 깨울 때 '사랑의 기지개'를 켜주자
11. 딸 아들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12. '유머수첩'을 만들자
13. 독특한 가훈을 만들자
14. '용서의 날'을 만들자
15. '따로 또 같이 여행'을 떠나자
16. 가정의 멘토(mentor)를 세우자
17. 가족달력을 만들자
18. 하루에 한번은 꼭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자
19. 가끔씩 '아빠는 요리사' 시간을 갖자
20. 생일엔 부모님께 미역국을 끓여드리자
21. 부부편지 쓰는 날을 정하자
22.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자
23. '사랑의 가족 족지'를 전하자
24. 자녀교육에 '531원칙'(5번 지도, 3번 칭찬, 1번 꾸중)을 세우자
25. 부부간에 서로 다른 성격을 인정하자
26. 사랑의 우체통을 만들자
    책상 서랍 한 칸을 비워두고 이곳에 가족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넣어둔다.
27. 가족의 용돈을 자율적으로 쓰게 하자
28. 자봉가족(자원봉사가족)이 되자
29. 자녀들에게 심부름상 고운말상 등을 주자
30. 코드를 뽑는 날을 만들자. TV를 안 보고 컴퓨터를 하지 않는 날을 정한다
31. 3대가 함께 식사하는 날을 만들자
32. 기억상자를 만들자. 자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을 모아둔다
33. '나 전달법'을 사용하자
34. '사랑의 큐티'로 행복체질을 만들자
35. 한 달에 한번 '가족의 날'을 만들자

글 편집부



카페 크리스찬
T:244-9117 시청 옆
http://cafechristian.cy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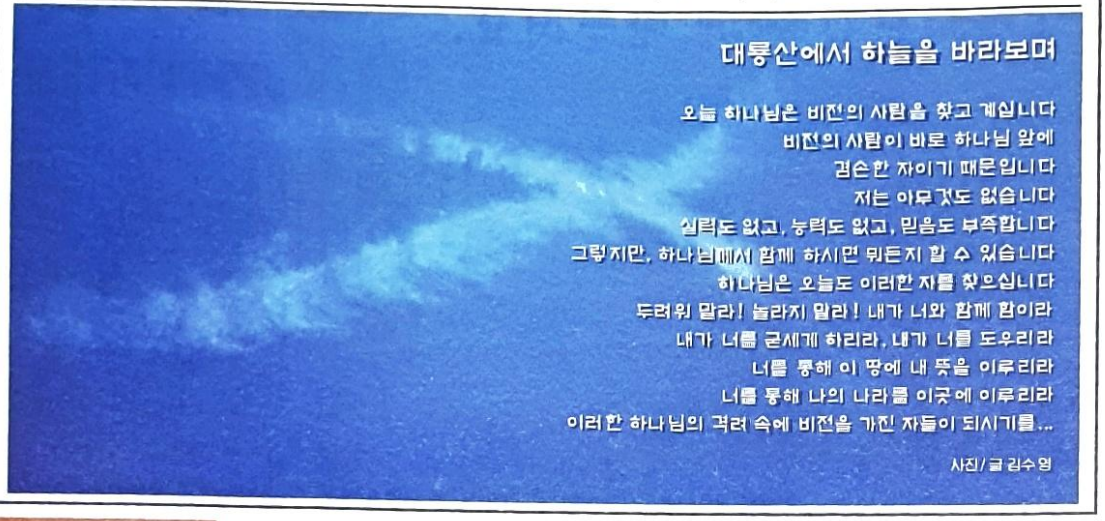
강원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
http://www.rehab.or.kr
□ 후원문의: 사회재활팀 (033-255-2491-3)
□ 후원계좌:
농 협(2003-01-422132)
우체국(200022-01-002412)
200-14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웃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聖地로의 특별한 초대
♥ 성지 순례 ♥ 여권 비자
♥ 단기 선교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 포 / 토 / 에 / 세 / 이 /



대룡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통해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리라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 속에 비전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사진/글 김수영

긴 급 구 호

월드비전의 긴급구호



이명신 관장 (월드비전 춘천복지관)

현재 전 세계는 자연재해 및 인재 등의 재난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재난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종족 간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초래한 분열로 인해 인간이 만든 재난의 복집성이 더해가고 있다.

월드비전이 긴급구호 및 복구사업을 실시하는 소명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의 결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기독교 구호/재건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을 신속히 구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월드비전은 재난발생 직후 72시간 이내에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물자와 서비스를 사전에 배치하고 신뢰할만한 다른 기관들과 연대를 이루어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기독교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현지 교회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재난 현장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재난발생에 대한 긴급구호 응대의 일환으로 즉각적으로 기도운동도 시작된다.

월드비전 긴급구호는 3종류로 분류한다.

Category I : 재해국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긴급구호상황(국내 태풍수해 등)

Category II : 재해국가가 포함된 대륙에서 도와야 하는 긴급구호상황(북한 기근, 이란 지진, 에티오피아 기근 등)

Category III : 전 세계가 도와야 하는 긴급구호상황(이라크 전쟁, 수단 내전 등)

2003년 연말에 발생한 이란 밤시 지진이나 이번 남아시아 쓰나미 사태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월드비전에서는 크게 3단계에 거쳐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제1단계(재난발생 7일간) : 초기긴급구호 – 수색 및 구조작업/비상식량 및 구호물자 지급

제2단계(재난발생 30일까지) : 구호요청에 대응 – 비상식량 및 구호물자 지급/전염병 예방/식수, 식량, 임시숙소 등 제공

제3단계(재난 발생 30일-90일까지) : 기초복구사업-주거시설 보수작업/식수와 화장실 등 위생시설 제건)

[쓰나미 긴급구호 현황]

월드비전은 지진 및 해일피해가 있었던 지난 12월 26일, 즉시 세계 월드비전 대표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도와야 하는 '긴급구호 카테고리 3 상황'을 선포하고 세계긴급구호팀을 가동시켰다.

재난발생 일주일까지는 수색작업 및 구조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비상식량과 긴급구호물자를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지급하였다. 1월 한 달간은 식량, 식수, 구호물자를 지급하고 임시 숙소를 제공함과 더불어 수인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위해 이재민 임시캠프 옆에 아동심터를 마련하여 아이들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앙후 계획]

국제 월드비전은 현재 1억5천 달러를 피해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며 월드비전 한국도 현재까지 스리랑카와 인도에 지원한 20만 불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총 72만 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비는 식량, 식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생존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지들의 고통과 아픔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피해상황 복구가 끝나면 긴급구호차원이 아닌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뿐 아니라 전보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월드비전의 사역이다. 이 사역에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은 하나님나라가 확장됨을 믿는다.

구인 · 구직광고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신뢰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성시화운동본부

신문배포를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033) 256-1260
010-3118-9355

행 사 안 내

▣ 월드비전 ▣

"동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지역 긴급구호"

우리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지금당장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월드비전은 인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후원계좌
농협 204-01-078120
예금주 : 월드비전 강원지부]

문의전화 : 033) 254-7244

※ 월드비전은 세계최대의 기독교 국제구호단체입니다. ※



사랑에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10-01-078120
☎ 251-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 부 교 회
예수께 전진하는 교회
온전한 주일 성수
성령충만한 예배
훈련 헌신된 인재 양성
화목한 성도
선교지향적 공동체
담임목사 곽 영 준
원로목사 노 정 관
교육전도사 조 형 연
장 로 박승택, 한길홍
김용환, 장준호
이상덕, 이상덕
이준열
200-112 춘천 소양로2가 93-34 ☎ 254-2183 253-1466 / fax 244-1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향 교 회
담임목사 이 병 철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주향교회
200-150 춘천 우두동 396-2(동부시 후문) 033-256-3927 / 017-254-3162

♡ 나눔의 동산 위문



지난 2004년 12월 29일(목) 오후2시 장보연합회 회장 위문식장로 외 위원 6명은 춘천 시 사북면에 있는 나눔의 동산(원장 김재숙전도사)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금일봉과 의류, 타올, 다과 등을 전달하였고, 특히 춘천YMCA신협이사장인 최종인장로는 백미40kg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 동부연회 실업인 선교회 총회



이 학 규 장로

지난 1월 5일(수) 속초 웨컴 콘도에서 열린 감리교 동부연회 실업인선교회 총회에서 회장에 이학규장로(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었다. 이학규장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과 감리교 동부연회 장로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상임부회장과 감리교본부 유지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동부연회 실업인선교회는 "더욱 국내외 복음전도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쓰고, 이웃사랑 · 나라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십사 장로회 총회



김 기 태 장로

춘천신앙공동체 기도모임인 '이십사 장로회'는 지난 1월 8일(토)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춘천중앙감리교회 김기태장로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약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십사 장로회는 곽영철 원로목사를 지도목사로 하여 영성훈련을 갖고 선교전략협의를 실천하며 개교회부흥과 지역전도를 위해 매달 1회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 성경번역선교200주년 춘천지역연합예배



GBT춘천지부에서는 1월9일(일) 오후 7시 베드로선교센타 추수홀에서 한국교회 성경번역선교 2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춘천지부 이사장 권기찬목사의 사회, 베드로선교센터 조은제목사의 기도, GBT선교회 대표 권성찬선교사가 "사람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GBT춘천지부 이사회가 특별찬양을 하였고, 이사 정재호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받은 성경 전합 성경'이란 영상물을 통해 성경번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1월 3일(월) 월드비전 강당에서 약100여명의 목사와 장로,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박상호목사의 사회, 임운식장로의 기도, 월드비전 강원지부장 이명신권사가 성경봉독을, 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예리야의 기도와 전도, 헌신하는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서는 특별기도로 길동휘목사가 '나라와 민족', 황영찬목사가 '춘천성시화', 김주환목사가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였고, 허천 국회의원과 류종수 춘천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감리교춘천서지방목회자 중창단과 석사감리교회 크로마하프 연주단이 특별찬양을 하였고, 오승용 전임기독교연합회장에게 1년간의 수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2005 성시실행위원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1월20일(목) 오후 7시 남춘천감리교회에서 2005년 성시실행위원 모임을 가졌다. 사무총장 조영춘목사의 사회, 전본부장 조남진장로의 기도, 본부장 유진형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유진형목사는 말씀을 통해 "제2의 웨슬레의 역사가 이땅에 일어나서 최초로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춘천이 최초로 결실을 거두는 도시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관을 개정하고, 지난 1년간의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2005년의 성시화운영계획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해일피해 성금 전달



지난 1월 17일(월) 춘천제일장로교회 박상호목사는 월드비전 이명신 지부장에게 동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를 위한 성금으로 18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1월 16일 주일예배 후 춘천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특별헌금이다.

♡ 강원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설명회



남춘천감리교회에서는 1월 21일(금) 오전 11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주최로 강원영서지역기독교연합회 임원단을 초청하여 2005년 부활절 설명회를 가졌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유호선목사의 사회, 칠원기독교연합회장 강태운목사의 기도,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부활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홍천기독교연합회장 장병두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사무총장 한창영목사의 설명회로 이어졌다. 한창영목사는 "2005부활절연합예배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부활의 산소망을 온 인류에게 알리고, 영적회복을 통한 교회부흥과 연합, 우상 · 미신문화타파와 경건한 기독교문화 확산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 군선교 강원지회 제 4차 총회



이 사 장 김주환 목사



지 부 장 박인관 목사



총 무 박태원 목사



사무국장 조경대 집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제4차 총회가 1월 21일(금) 오전 11시 춘천광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설교-정성호목사, 27사 군종참모)후, 2부 박상호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김주환목사(춘복음춘천교회), 지회장에 박인관목사(춘천광염교회)가 선출되었다. 또 총무로는 박태원 목사(평화군인교회), 사무국장 조경대 집사(춘천광염교회 군선교위원장), 간사에 정태정(춘천광염교회)가 선임되었다. 2001년 3월 11일 창립된 군선교 강원지회는 비전 2020프로젝트(2020년까지 전국민의 75% 신자화 목표)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춘천 · 화천권의 군부대 장병위문을 비롯하여 진중 세례식 및 사랑의 온차 행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3년의 임기로 새로 시작하는 신임 임원단들은 춘천 회천권의 모든 교회들이 군선교에 대한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후원 계좌: 우체국 202051-01-002531 군선교강원지회]

초대교회의 부흥과 사랑을 꿈꾸는 교회
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영혼 사랑 실현의 해
품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인도하자!
담임목사 조 영 호
2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25번지 8통 2반 ☎ 251-2354 011-369-235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제일교회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
1. 예배하는 건강한 영혼
2. 봉사하는 건강한 육체
3. 헌신하는 건강한 가정
4. 순종하는 건강한 생활
담임목사 박 상 호
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
☎ 033) 241-4361-2 / FAX 241-4364
http://www.chjeil.org

사 설



" 우리 중에 이런 상식이 필요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16세기 유럽으로부터 전파된 담배는 한 때 정신과 치료요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담배연기 속에는 7천 가지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암 유발인자로 판명이 난 '타르'와 혈액 속의 산소를 빼앗아 숨을 가쁘게 하는 '카본 모노싸이드'와 어떤 사람은 담배는 독이 없다하나 습관성이 강하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끊기가 어렵고 심장박동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는 '니코틴' 등이 있으며, 담배가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담배를 피운 경력에 비례한다. 담배연기로 흡입된 니코틴이 대뇌까지 도달하여 영향을 미치는 데는 단 7초가 걸린다. 그러므로 담배 피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어도 금방 어지럽고 기침을 한다. 더욱 참고할 것은 담배는 피운 사람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금연효과는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멋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금연 20분 이내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손발부터 정상체온으로 올라간다. 금연 8시간 이내 혈중 카본모노싸이드의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고 혈중 산소량이 정상치로 올라간다. 금연 12시간 이내 심장마비의 위험에서 훨씬 멀어진다. 금연 48시간 이내 말초신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냄새와 맛을 더 잘 구별하기 시작한다. 금연 72시간 이내 기관지가 편안해져서 호흡이 좋아진다. 금연 2주 이내 순환기능이 좋아져 산책하기가 아주 좋아지며, 폐 기능이 30% 증가한다. 금연 9개월 이내 기침, 피로, 숨 가쁜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을렸던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며 얼굴색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체력의 상승을 느끼게 된다. 금연 5년 이내 폐암으로 죽는 확률이 반으로 뚝 떨어진다. 금연 10년 이내 폐암으로 죽는 확률이 10%이하로 뚝 떨어진다.

근간 교회 안에서도 술 담배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백해무익한 것을 왜 거론하는지 알 수가 없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기에 확을 이루는 음주 문제는 가정 파괴범으로까지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흡연과 음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흡연과 음주는 두뇌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모의 흡연과 음주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복음전파와 함께 금연 · 금주 문화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운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 알려드려요

◆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
일시: 2월 12일(토) 오후6시30분
대상: 춘천 중 · 고등학교 임원 모임
'3 · 3영성훈련' 수료식 및 멤버 임명식
2) '십원단 수련회'
일시: 2월 28일(월) 오전10시부터
장소: 평화감리교회
문의: 244-5400/011-9901-829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간사 IBS
일시: 1월 31일(월) ~ 2월 4일(금) 오전 8시 ~ 오후5시
장소: 서울본부
2) 강원간사모임
일시: 2월 12일(토) 오전 11시
장소: 강릉CCC회관
2) 순장수련회
일시: 2월 15일(화)~2월18일(금)

◆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6시30분부터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 011-9490-6612

◆ JDM
1) '춘천지구대학 개강 LTC'
일시: 2월 17일(목)~ 19일(토) 2박3일
장소: 춘천지구회관
2)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회(캠퍼스3 · 3)'
일시: 2월 28일(월)~ 3월 5일(토)
3) 'KDTI 개강예식'
일시: 3월 2일(수) 예정
4) '3월 11일(금) 성교특강'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대상: 춘천지역 교역자 및 캠퍼스 사역자 등등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문의 : 033)252-3192 /011-9058-3192

◆ IVF
1) 캠퍼스 정기모임 안내
· 강원대: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 한제남 간사 011-367-9120)
· 한림대: 매주 화,목 오후6:30분 문의: 이용훈 간사 016-444-7406
· 교육대: 매주 화 오후6:30분 (문의: 박용현 간사 017-374-6865)
· 성심,기능대: 매주 화,목 오후6:30분 문의: 박용현 간사 017-374-6865
문의: 252-5200/아시아선교원

◆ 어린이 전도협회
1) 2005년 새학기 교사강습회 (Supper 세미나 1.2.3 단계)
※오전반 2월 14일(월)~16일(수) 오전9:30-12:50
※저녁반 2월 14일(월), 15일(화), 17일(목) 저녁6:30 - 9:50
• 등록금 : 1인당 15,000원 (간식, 핸드북 포함)
• 등록인원 : 1단계 오전반 30명, 저녁반 30명 (선착순)
2단계 오전반 20명, 저녁반 20명 (선착순)
3단계 오전반 20명, 저녁반 20명 (선착순)
• 등록마감 : 2월 12일 - 등록마감 이후등록은 20,000원
• 등록방법 : 2월 12일 전까지 전화및 메일로 등록신청 후 농협 203-01-391337로 입금
2) T.C.E 전도자 대학 1단계
※이론훈련 : 2월 21일(월) - 26일(토)
오전반 9:30-1:00 / 저녁반 6:30-10:00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등록마감 : 2월 19일 등록금 : 100,000원
자원자 면접 : 14일 -19일 중 택일하여 본회 사무실에서.
※전도 실습훈련 : 3월-6월중 입주일에 한시간 12주 전도
3) 새소시반 주간 강습회
일시: 3월 7일(월)부터 5월 23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2:30 / 저녁반 7:00-9:30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등록금 : 1인당 20,000원 선착순 50명
문의 : 253-1443, 242-8291, 018-292-8839

◆ 베드로선교센타
1) 선교사를 위한 세계선교연구원 개강
일시: 2005년 1월 3일(월) ~2월 말까지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강의실
2) MP식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 019-9003-1148

◆ 제이랙
1) '제이랙 금요찬양집회'
일시: 2월 4일(금) 저녁7시(매달 첫째주 금요일마다)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문의: 244-8566 / 018-210-8566 / 011-9368-9856

◆ GBT
1) 워크숍 스쿨 리더교육
일시: 2월 2일(수)~2월 4일(금) 장소: 천안 여명교회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85-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증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열린교회
예광침례교회		증앙장로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성결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우리여행클럽		엔투어
유림닭갈비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병	민 병 업	박 등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에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관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2005년도 임원

회 장	최 현 묵 목사(남춘천침례교회)		권 기 호 목사(시민장로교회)
부 회 무	조 영 춘 목사(예광침례교회)		이 병 철 목사(주향장로교회)
	이 춘 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		김 태 권 장로(동부장로교회)
총 무	김 혜 영 목사(중앙장로교회)		서 종 신 장로(광장감리교회)
서 기	박 종 식 목사(남춘천그리스도의)		한 명 수 장로(창대감리교회)
회 계	정 명 훈 목사(예강장로교회)		김 원 호 권사(석사감리교회)
협동총무	소 영 섭 목사(만리등침례교회)		임영일 안수집사(춘천침례교회)
	송 용 학 목사(신광장로교회)	감 사	양 기 태 목사(선남감리교회)
	송 문 식 목사(은성장로교회)		

한국장로연합회 춘천지회 임원

회 장	김 유 식 목사(한신교회)	011-361-1995
총 무	김 종 익 목사(광명교회)	019-261-5572
부 총 무	지 성 태 목사(춘천교회)	011-9010-5393
서 기	정 재 호 목사(늘사랑교회)	010-6416-8150
부 서 기	김 혜 영 목사(중앙교회)	019-420-0695
회 계	전 은 풍 장로(제일교회)	010-5369-1084
부 회 계	김 학 구 장로(동부교회)	011-371-4515